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선구자



새벽 잡지

2025년 10월

목차

새벽의 주요 사건들	2
부활의 확실성	2
국제성경연구회	23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협받다.....	23
땅에 있는 악	27
새 언약의 약속	31
회복의 예언.....	35
기독교 생활과 교리	39
기드온, 입다, 삼손.....	39

성경과 함께 따라가 보세요!

부활의 확실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내가 여기 서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증언합니다.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22,23

부활에 대한 확신은 성경에서 매우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이며,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의 본질을 완전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망각의 상태, 즉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5,6,10). 완전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창세기 2:17; 로마서 5:12; 6:23).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셨다: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흙에서 나왔음이라 네가 흙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19). 사후 세계나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아담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없이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부활 계획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었죠.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 정하신 이를 따라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7:31).

예수님의 부활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이 아담을 위한 랜섬으로 죽으신 것은 지극히 중요했으나,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셔야 하는 것 또한 동등히 필요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사야 9:6,7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의 권세가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Wonderful), 모사(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Mighty God), 영존의 아버지(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이라 하리라 그의 통치와 평화가 끝이 없을 것이라.” 제자들은 이 약속이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 시기에 성취될 것으로 기대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토록 낙담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일이 되던 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주님은 낙담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다. (누가복음 24:1,21) 그들은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계획 중 이 중요한 부분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부드럽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마음이 둔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누가복음 24:25-27). 이후 사십 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으나,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화해 계획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14-36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교리는 성경의 여러 분명한 진술을 통해 가르쳐집니다. 욥기 14:13-15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며, 정해진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노라! ...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이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원하시리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죽은 자들이 살며,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너희 이슬은 풀의 이슬 같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사야 26:19).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랜섬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리라. 죽음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무덤아, 내가 네 멸망이 되리라." 호세아 13:14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부활의 절대적 확실성은 신성한 약속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부활이 요구되었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15-18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창세기 17:19).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수년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다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창세기 22:1,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확신은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 남겨진 이들에게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나와 이 소년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지시했습니다(5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17-19에서 이 생각을 확증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가 독생자를 드렸으니 곧 그에게 이르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불리리라' 하신 바 된 자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리라 여기고 또 상징적으로 그를 다시 받았느니라" (). 이 그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예수님은 이삭으로 나타났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들을 성취하시려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써, 반드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이 일곱 명의 죽은 남편들의 아내였다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꾸며내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주님께 던진 질문은, 천국에서는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잘못 알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마태복음 22:23-30).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에는 결혼이 없을 것이므로 사두개인들이 꾸며낸 상황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교리 속 오류를 지적할 기회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31,32절; 출애굽기 3:6

사두개인들은 조상들이 수세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관계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18,19에서 모세는 새 중보자와 새 언약 아래 운영될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내가 그들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벌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21-26에서 모세의 이 예언을 왕국에 적용하며, 이를 “만물이 회복되는 때”라 칭하고, 이 놀라운 때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청중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원래의 예언()을 상기시켰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설교는 성전 현관 중 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청중 가운데에는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선언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축복하시려고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 각 사람을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 하심이라” 하자,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고, 그를 통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다. 기록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수를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사도행전 4:1,2

율법 언약의 예언적 특징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 언약의 많은
특징들이 미래 사건들을 예표했다고
알려줍니다(고린도전서 10:11; 히브리서 10:1). 특히
율법의 일부인 레위기 23장에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이 장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민족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첫
달 열네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아야 했고, 열다섯 날에는
무교절을 지켜야 했는데, 이 절기는 칠 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6; 레위기 23:5,6).
이스라엘 백성은 "첫 달 열다섯 날, 곧 유월절 다음
날"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민수기 33:3).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곡식 수확을 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추가 의식을 행하라고 지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작물을 거두면, 너희는 그 소작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게 할지니 안식일 다음 날에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레위기 23:10,11). 여기서 언급된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을 표시하는 거룩한 집회를 의미한다.

의식의 일환으로 제사장은 들판으로 나가 익은 곡식을 골라 한 다발을 묶어 단을 만들었다. 그는 돌아와 제단에서 그 단을 주님 앞에 흔들어 추수의 첫 열매로 드렸다. 이 행위는 오십 일 동안 지속될 곡식 추수의 시작을 알렸다. 15,16절

이 절기의 특징은 예수님의 경우에 놀라운 예언적 의미를 지녔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세부 사항을 완벽히 지키셔야 했다. 니산월 14일은 해질녘에 시작되었으며, 한밤중이 지난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가야바에게 넘겨진 뒤

로마인들에게 인도되었다(마태복음 26:47-75; 27:1-26).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3시(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는 여전히 니산월 14일이었다. 예수님은 제9시(오후 3시경)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숨을 거두셨다. (마가복음 15:25-37).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니산월 14일, 즉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들이 잡히는 바로 그날에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이 연관성을 확인하며 "우리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7

예수님의 시신은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53-55). 시신은 다음 날 해질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즉 안식일인 니산월 15일 내내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56절). 그 후 이른 아침—즉 주간의 첫째 날, 니산월 16일—에 여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발견하고 (누가복음 24:1-6; 마가복음 14

새벽

16:1-6). 이로써 예수님은 영적 추수의 "첫 열매"이자 죽음 가운데 잠든 자들의 "첫 열매"—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20). 우리는 유대인 제사장이 니산월 열여섯째 날 이른 아침 주님 앞에서 곡식 단을 흔들며 예식을 행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상세한 증언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여 약속된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복음[그리스어: 좋은 소식]임을 상기시키며, 그 메시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3,4

사도는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분을 보았고, 그 후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이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습니다(5-8절). 12-19절에서 바울은 부활 교리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조차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타나신 것은, 그분의 랜섬 제물의 가치나 공로를 신성한 정의의 손에 드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논증의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지으며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는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음 같이 사람[예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음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즉, 모든 사람이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을 기회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20-22절). 바울은 부활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설명한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 (23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며, 사도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마태복음 19:28,29; 요한계시록 20:6). 그다음 왕국의

백성들,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28,29

육신과 영적인 몸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 네가 심는 것은 장차 될 그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심는 것이니, 그것은 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곡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몸에 형체를 주시며, 각 씨앗마다 그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육체가 하나요, 짐승의 육체가 또 다른 것이요,
물고기의 육체가 또 다른 것이요, 새의 육체가 또 다른
것이니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있으니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하나요,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또 다른 것이니라. 해의 영광이 하나요,
달의 영광이 또 다른 것이요, 별의 영광이 또 다른
것이니, 별과 별이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부패할 것으로 심겨지나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수치를 당할 것으로 심겨지나 영광을 받을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겨지나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지나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35-44

사도 바울의 이 진술에는 여러 비유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부활 시에는 한 종류 이상의 몸이 존재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진 자들과 영의 몸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가질 몸의 종류는 죽음에 뿌려진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가 38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개인이 이 생애에서 발전시키는 인격이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인류 대다수는 이 땅에서의 삶에 가장 적합한 성품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를 가진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 지구는 살기에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진 더 높은 삶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은 마음과 정을 땅의 것에서 돌이켜 영적인 것에 두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로마서 12:1,2; 골로새서 3:1-3).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여 영적인 마음을 발전시키는 지경에 이르면, 이는 그들이 죽음 속에서 뿌리는 성품이 되며, 이들은 부활 때에 영적인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영적 본성으로 부활하는 자들에게 불멸이 주어진다고 설명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죽음이 승리로 삼켜졌도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53,54). 본문의 요지는 현 시대의 일이 완성되고 신성한 본성을 갖게 될 모든 이들이 부활할 때, 바울이 부분적으로 인용한 이사야 25:6-10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부활로 땅의 티끌에서 돌아온 인류에게 임할 왕국과 축복에 관한 예언이다.

“그[하나님]께서 승리로 죽음을 삼키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온 땅에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책망을 없애시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 날에 이르기를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8,9). 그러므로 예언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신실한 사도들이

말씀하신 부활의 확실함을 기뻐합니다.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0월 5일 교훈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협받다

핵심 구절: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26:13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1:6-10; 26:8-15

"권력에 진실을 말하다"라는 표현은 20세기 중반 시민권 운동과 반전 운동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권위에 맞서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는 이 개념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이 개념은 성경에서도 발견되며,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신 답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나라는 여기서 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거니와 내가 왕이라 하였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은즉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8:33,36,37

오늘의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삶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는 그가 비록 소년이라 불리지만 유다 백성에게 반드시 예언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고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은 무엇든지 말할지니라. ...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국과 열왕 위에 세워 뽑고 부수며 멸하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노라.”
예레미야 1:7,9,10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신적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 위선과 거짓 의로움의 폭로, 대중적 신념과 행동의 모순 지적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자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도발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읍과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예언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귀족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을 만하니, 너희가 귀로 들은 바와 같이 이 성읍을 향해 예언하였음이니라" 하니,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너희와 이 성읍에 무죄한 피를 부을 것이니라. ...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지지하였으므로, 그가 백성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예레미야 26:11,14,15,24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주어, 인기가 없을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9,20

땅에 있는 악

핵심 구절: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길로 행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노라”

예레미야 7:23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7:1-11, 21-23

본문의 명령은 출애굽기 19:5, 레위기 26:3-12, 신명기 5:33에 나오는 명령을 간결하게 재진술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살며 번성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로 나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순종은 제사보다 항상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 사이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와 심판으로부터 안전을 구했습니다.

오늘의 선택된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해진 여호와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순종이 성전 제사보다 우월함을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땅에 살게 하리라. 거짓된 말에 의지하여 말하지 말라. '여호와와 성전, 여호와와 성전,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지 말라. 너희가 진실로 너희 길과 행실을 고치고 서로 공평하게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해치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주었던 땅에 살게 하리라. 그러나 보라, 너희는 헛된 거짓말에 의지하고 있느니라.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내 이름을 지닌 성전에 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안전하다—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해도 안전하다’고 하겠느냐? 내 이름을 지닌 이 성전이 너희에게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느냐? 그러나 내가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2-11

이 강력한 말씀은 유다가 악한 길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성전 제사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알려진 죄를 행하거나 인정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자유로운 구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반대하며 말한 유다 왕국의 악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럽힌 성전을 두고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자신들의 보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 경고는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다. 우리는 매주 쉼 없는 날 동안 불순종하며 살다가 안식일에 교회 건물에서 구원을 주장하며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거기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계속 죄를 범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로마서 6:1,2).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하려는 진실한 노력은 그러한 유독한 감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신성한 율법의 탁월함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죄의 악함도 드러내셨다. (로마서 7:13). 우리가 악을 행해도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새 언약의 약속

핵심 구절: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33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31:27-34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출애굽기 19:5,6).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라." 8절

언약에 대한 순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서약을 어겼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본 교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집안 모두에게 미래에 세워질 새 언약에 대해 말한다. (예레미야 31:31).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대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므로 첫 언약보다 우월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언약—“율법”의 목적이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궁극적 구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임을 설명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는 참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어, 오실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가두어 두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21-24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생긴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한 중재자가 필요할 것이다. 모세는 원래 언약의 중재자였으나, 하나님은 이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더 나은 중재자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신명기 18:15-19; 사도행전 3:22,23; 디모데전서 2:5). 새 언약은 먼저 이스라엘과 맺어지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온 인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17; 20:6). 새 언약이 제공하는 생명의 혜택을 누리려는 각 사람은 순종을 요구받을 것이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것은 장차 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5-7). 교회 계급의 발전은 중재자의 도움으로 새 언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변호자[위로자 또는 도우미, 중재자가 아님]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요한일서 2:1

새 언약을 통해 온 인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려는 우리의 소망에 충실합니다. 요한계시록 21:1-5

회복의 예언

핵심 구절: "산지 성읍들과 골짜기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들이 다시 그들을 세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갈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 33:13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1-13

오늘의 핵심 구절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성한 돌봄과 축복을 대가로 율법과 규례의 언약 아래 순종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하나님께 돌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선지자 이사야도

창조주와 그 택하신 백성 사이의 동일한 관계를 선포합니다: "그가 목자처럼 자기 양 떼를 돌보시며 어린 양들을 팔에 안으시고 가슴에 붙들고 어린 새끼를 가진 자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느니라." 이사야 40:11

이스라엘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중심적인 목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내 양 떼를 버리고 모든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 목자들이 되었으나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보았으나 양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었느니라" (에스겔 34:8).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들이 여호와의 지시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선지자들이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시 모든 나라 가운데 세울 목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전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과 같은 통치자로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에스겔 34:23

하나님의 사자들을 주목하던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특별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즉시 이해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31,32

우리의 핵심 구절에 나오는 "수"라는 단어는 '계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비록 크게 죄를 지었으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양으로 계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6).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46, 로마서 11:25-26 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민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약속과 언약의 첫 수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인지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보다 더 큰 이가 없나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4-29)

기드온, 입다, 삼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사 그 사사가 있는 날
동안에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사사기 2:18

여호수아 사후 수 세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명확한 정부 체제가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사람들은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민수기 33:52-56; 사사기 21:25). 대체로 불의와 거짓 신 숭배의 흐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의 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 2:13-15).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사사들을 세우셨다." (16절). 이 글에서는 세 명의

신실한 사사—기드온, 입다, 삼손—의 삶을 살펴보겠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였다. 처음 등장할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려 하고 있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해 왔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용맹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사기 6:11,12). 기드온의 천사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거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와도 함께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했던 그 기적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13절

이 대답이 반드시 기드온이 천사의 주장을 의심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마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그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적을 행하여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그러할 것임을 확신받고 싶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기드온에게 대답하셨다: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확신은 기드온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는 대답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난한 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14,15절

여기서 기드온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사용하신 모든 이들이 지닌 특징적인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고, 분명히 기드온은 가족 안에서 자신이 별 중요성이 없다고 느끼게 될 만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백성의 구원자로 택하셨을 때 그가 놀라고 주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처럼 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사사기 6:16).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확언하실 때, 가장 겸손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믿는다면 용감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믿음은 강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자신과 대화하시는 분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표적을 보여 주소서.” 17절

기드온이 여호와와 천사에게 "제가 가서 예물을 가져다가 당신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떠나지 말아 달라고 청하니, 천사가 머물겠다고 약속하였다. "기드온이 들어가 어린 염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파로 만든 무교병을 준비하였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솥에 담아 참나무 아래로 가져와 그 앞에 바쳤다." (18,19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그가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만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삼켰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니라." 20,21절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한 권능의 기적적인 현현과 하늘 사자의 갑작스러운 소멸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와 대화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아, 여호와 하나님이어!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보았사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네게 있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22,23절

바알 숭배의 파괴

이제 기드온은 여호와와 축복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 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는 그 땅에서 바알 숭배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드온에게 엄중한 시험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친아버지가 이 이방 숭배를 위한 제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의 송아지 곧 일곱 살 된 두 번째 송아지를 취하여 네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스다롯 나무를 찍어 버리라 이 바위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네가 베어 낸 아세라 나무로
번제물을 드리라.” 사사기 6:25,26

기드온은 이 지시를 실행했다. 그는 열 명의 종을
동원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는 밤중에 지시를 실행했는데, 이는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일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바알 숭배자들의 격렬한 반응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드온이 그 책임자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가 죽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7-30절

그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 요구를 했다.
그러나 요아스는 비록 아들이 파괴한 바알의 제단과
아스다롯 신전을 세운 자였으나, 기드온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바알을 변호하겠느냐?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를
변호하는 자가 있다면, 아침이 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게 하라. 그가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무너뜨린 자를 변호하게 하라." 사사기 6:31

요아스는 바알이 자신의 제단이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동정심은 지혜롭게 기드온 쪽으로 기울어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점점 커져 갔다. “그 날에” 요아스는 아들을 “여룹바알[히브리어: 바알이 다투게 하라]이라 부르며 말하되, 그가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하게 하라”고 했다. 32절

군대가 모이다

즉각적인 위기가 발생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자손들이 모두 모여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는 나팔을 불자,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는 또한 사자들을 보내어 "마나세 온 땅에 전파하니, 그들도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도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올라와 그들을 만나러 왔다." (33-35절). 일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지휘를 따를 준비가 된 군대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졌던 그에게 이는 상당히 압도적인 사건의 전개였을 것이다. 그가 주님께로부터 더 큰 확신을 필요로 느낀 것도 당연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뜰에 양털 한 뭉치를 놓으리이다. 이슬이 오직 그 양털에만 내리고 그 주위 땅은 모두 마른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 (36,37절).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참으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양털을 살펴보니 완전히 젖어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물 한 그릇을 가득 담을 만큼”이었으며, 그 주변 땅은 마른 상태였다. 이로써 충분히 확신했어야 했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조건을 바꿔 두 번째 시험에서 주님께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요구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하였다. “주께서 내게 진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나이다.” 다시 주님께서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양털 위만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내렸기 때문이었다.” (39,40절).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기에 살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고 수년간 적들에게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을 만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찰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처럼, 기드온도 자신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 자신감의 결핍이 주님께서 기드온을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려 하신 또 다른 교훈이 있었으니, 그것은 숫자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은 군대()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셨다(). “네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줄 수 없노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도다’ 할까 두려우니라.” 사사기 7:2

기드온의 지휘를 받기로 한 자원군 원병의 원래 규모는 삼만 이천 명이였다.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그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백성 중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3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해 그들을 가려내리라.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면 갈 것이요,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 가지 않을 것이다." (4절)

시험은 간단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는 것이었다. 만 명 중 오직 삼백 명만이 "손을 입에 대고" 물을 핥아 마셨으며, 이로써 마시는 동안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삼백 명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이끌게 될 전 군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5-7절

더욱 굳건해진 믿음

이스라엘의 적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기드온은 분명히, 것처럼 막강한 무장 세력을 고작 삼백 명의 병사로 무찌를 수 있다는 확신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종 푸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진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지시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들을 내용이 후에 있을 공격에 대한 용기를 줄 것이라고 하셨다. 9-11절

미디안 군대 진영을 방문한 것은 밤중에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보초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라고 그가 말하길, 보리 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갔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천막을 쳐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렸다." 친구가 대답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아니면 다른 무엇일 수 없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과 온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소." (13,14절) 이 꿈과 그 해석을 우연히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로 택하신 삼백 명의 작은 무리가 실제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서 그는 말했다.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가라.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15절)

기드온의 삼백 명 병사들은 무기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 각자에게 나팔과 흙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넣을 등불이나 횃불을 주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군대도 이와 같은 장비로 무장한 적은 없을 것이다. 기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드온의 전투 방식과 공격 계획이 주님의 지시에 따른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무기를 지급한 후, 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아래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 군대를 둘러싼 언덕 양옆에 배치했다. 기드온은 소규모 부대 중 하나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사사기 7:16

그는 모두에게 자신이 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나팔을 불면 그들도 나팔을 불어야 했다. 동시에 그들은 횃불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항아리를 깨뜨려야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와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로다"라고 외쳐야 했다(17,18절). 이전에 동료의 꿈을 해석했던 미디안 사람은 "이것은 기드온의 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꿈과 그 해석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의 삼백 용사들의 함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략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었던 듯하다. 비록 그의 군대는 소규모였지만, 그는 그들을 미디안 진영을 사실상 포위하는 방식으로 배치했다. 보통 군대의 지휘관들만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텐데, 미디안 사람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삼백 개의 나팔 소리와 흔들리는 삼백 개의 횃불을 보게 되면, 엄청난 군대에 공격받는다는 인상을 확실히 받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전략을 '심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삼백 명이 모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칼과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자, 적군 진영에 공포와 패닉이 퍼져 나갔다. "여호와께서 온 군대 가운데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향해 칼을 들게 하셨다"(19-22절).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격하여 마침내 그들의 지도자들과 왕들을 사로잡아 죽였다(사사기 7:23-25; 8:1-21). 이스라엘의 승리는 완전했다.

기드온은 성경에서 가장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유능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주님의 천사가 처음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지만, 자신의 작은 군대에게 이것을 전투 구호로 사용하라고 지시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 먼저 두었다: "여호와와 칼과 기드온의 칼."

그의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라. 네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나 여기서도 기드온의 겸손과 올바른 관점이 드러난다. 그는 이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22,23).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사는 다시 한번 백성 앞에 주님을 두며, 오직 그분께 순종할 때에만 자유롭고 번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드온의 본보기와 신실한 재판관직의 결과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만 지속되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좇아 음란하게 행하며 바알벨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룹바알 곧 기드온의 집에도 그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8:33-35

입다와 그의 딸

기드온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악을 행한 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도록 여러 사사들을 세우셨으나, 길르앗의 아들 샷파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입다에 대해서는 용맹한 용사로 소개되지만, 그는 "낮선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여 "형제들을 피해 도브 땅에 거주하였다." 사사기 11:1-3

입다의 지도자적 능력과 군사적 재능은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겨지던 자들조차도 분명히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심히 압제받게 되자,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그가 암몬 자손을 물리친 후에는 그에게 나라의 지도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입다는

마지못해 수락했고, 주님의 축복이 임했던 이전의 다른 장군들처럼 승리했다. 4-32절

그러나 샷파의 이름이 성서에 두드러지게 기록된 이유는 그의 군사적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신의 도움으로 주어질 승리를 예상하며 주님께 한 서원 때문이다. 그 서원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었다. 30,31절

입다의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린 딸, 외동딸이 집에서 나와 그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그녀를 보자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완전히 망쳐 놓았구나! 네가 내게 재앙을 불러왔구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바가 있으니, 이를 돌이킬 수 없느니라.'" (34-35절)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기록했습니다(전도서 5:4,5). 입다도 이 관점을 지녔습니다. 비록 그의 서원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렇게 엄숙한 의무를 지게 된 이상 그는 이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딸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고 단지 두 달의 시간을 청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처녀됨을 슬퍼하며 내 친구들과 함께 울게 하소서"라고 했다. 샷대야는 이 청을 허락했다. 두 달이 지난 후 "그녀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 샷대야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1:36-39

일반적으로 여파가 실제로 자신의 딸을 소나 염소처럼 제물로 바쳤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성경 기록을 대충 읽어보면 이 관점을 지지하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 40절을 해석한 방식은 다른 생각을 제시하는 듯하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길르앗 사람 여파의 딸에게 가서 일 년에 사흘 동안 이야기하러 갔다"고 설명한다.

39절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매년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파의 딸이 살아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소녀가 평생 처녀로 남았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인들의 관점에서 이는 아버지가 딸에게 요구한 엄청난 희생이었다.

이 생각은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입다(Jephthah)가 자신의 입장을 딸에게 설명했을 때, 그녀가 두 달의 유예를 요청한 것은 일부 주석가들이 설명하듯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처녀성을 애도하기 위함이었다. (사사기 11:37). 그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을" 때,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여호와와의 영"에 이끌린 자였다(29절). 그러므로 그는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된 행위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12:29-31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 입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에브라임 자손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했다. 그들의 반란은 주로 입다가 암몬 족속 정복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고, 입다는 그들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 삿대야의 생애에 관해 기록된 것은 그뿐이다. 다만 그가 사사로 재임한 기간이 6년이었고, 그가 죽었다는 것뿐이다. 사사기 12:1-7

강한 자 삼손

입다 사후에도 여러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으나, 기록에 간략히 언급될 뿐이다.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사사는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으로 인해 그가

사사로 세워졌다. 그 벌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사사기 13:1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때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는 아직 천사로 인식되지 않은 이 방문자를 자신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받아들여졌고, 천사와의 대화 중에 마노아는 바위 위에서 어린 염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 염소가 불타오르자 천사는 불꽃 속에서 그들로부터 올라갔다. 그제서야 그들은 천사가 찾아왔음을 깨달았고, 그들에게 태어날 아들 이 이스라엘에게 지니는 중대한 의미를 깊이 새겼다. 천사가 설명했듯이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자였다. 2-24절

주님의 지시에 따라 삼손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그의 부모는 그가 평생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지시받았기 때문이다. 민수기 6:1-21에

기록된 유대 율법의 조건에 따르면, 나실인은 제한된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주님의 섬김에 전념하는 자였다. 나실인의 외적 특징 중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다.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충실했기에, 히브리서에서 기드온과 입다와 함께 고대의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으로 언급된다. 히브리서 11:32

삼손은 결혼한 상태였으나, 어느 날 "델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사사기 16:4). 그녀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비밀을 델릴라에게 털어놓았다(15-17절).

삼손의 머리카락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그가 잠든 틈을 타 한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다. 아마도 삼손이 들릴라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서약을 어기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머리카락이 사라지자 주님은 그에게서 힘을
거두셨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두었다. 19-21절

삼손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혀 왔기에, 그들은 이제 그를
제압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놋쇠 족쇄로 그를 묶어
두었습니다. 이 강력한 삼손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블레셋의 귀족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23,24절

이 모임은 그들의 이방 신전 안에서 열렸으며, 대단한
집회였다.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고, 블레셋의 모든
귀족들이 거기에 있었으며, 지붕 위에는 삼손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려는 남녀 약 삼천 명이
있었다"(25-27절). 위대한 삼손에게 얼마나 큰
굴욕이었는가!

상황은 곧 바뀌었다. 삼손의 믿음이 구원자가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자,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건물 지붕을 지탱하던 두 기둥 사이에 몸을 고정시킨 그는 그 기둥들을 밀어 떼어냈고, "그 집이 그 귀족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22,28-30절

여기서도 우리는 블레셋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힘이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삼손의 모든 힘의 업적은 여리고 성벽의 붕괴나 홍해 갈라짐과 마찬가지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한 사람을 통해 그 힘을 나타내 보이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임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심판자들

그 미래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와 그 시대의 신실한 추종자들이 심판자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 17:31; 고린도전서 6:2). 이스라엘이 신성한 법에 불순종하여 원수들에게 속박을 당한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중대한 책임을 위해 미리 준비된 이 재판관들을 세우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 기꺼이 순종하는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전망입니다!